

2016 '로고스를 입다'

**9 장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충성심의 딜레마**

작성자 : 이 문수

대서울교회

2016 '로고스를 입다'



사과와 손해 배상

□과거 역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공개적 사과와 관련된 사례

- 독일은 유대인 대학살 책임을 인정
- 일본군은 한국 등 여러 아시아 국가의 여성과 소녀들 수만 명을 강제로 끌고 가 매매춘을 시키고 일본군의 성 노예로 삼았다.
- 호주 토착민에 대한 부당한 역사적 행위에 대한 것
- 미국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사과 문제는 노예제 유산에 관한 사안

□국가는 과거의 역사적 잘못을 사과해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집단 책임과 공동체의 요구라는 다소 어려운 질문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개 사과를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

- 정치 공동체에 의해 부당하게 고통 받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부당함이 희생자와 후손에게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인식하며, 부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것을 막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공개행위로서 공식 사과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도덕적 정치적 화해의 기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속죄와 사과의 실질적 표현 수단인 금전적 배상도 비슷한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 더불어 희생자와 그 후손에게 미치는 부당 행위의 후유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의견

- 더러는 공개 사과나 배상을 하려는 시도가 오랜 적대감에 불을 붙이거나, 역사적 원한을 심화시키고 피해의식을 공고히 하여 오히려 분노를 키우는 등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사과나 배상이 정치 공동체에 치유가 될지 오히려 해가 될지는 복잡한 정치적 판단의 문제다. 그 답은 사례별로 다를 것이다.

조상의 죄를 우리가 속죄해야 할까?

□과거의 역사적 부당 행위에 대한 사과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

- 내가 하지 않은 행위를 내가 사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사과할 수 있단 말인가?
- 도덕적 이해관계를 정확히 따지고 들면서, 현 세대가 앞선 세대의 죄와 관련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사과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방식이다. 그리고 사고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의 인정이다. 누구든 부당한 행위를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과는 그 부당함과 어떻게든 관련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도덕적 개인주의

- 공식 사과에 대한 원칙적인 반박은 쉽게 무시할 수 없다. 그런 반박은 자신이 한 행동만 책임질 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 하지만 이런 태도는 문제를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공식 사과에 대한 원칙적 반박은 강력하고 매력적인 도덕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게를 가진다. 우리는 그 개념을 '도덕적 개인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도덕적 개인주의 원칙은 사람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기보다는 자유의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주의자들에게 자유란 내가 자발적으로 초래한 의무에만 구속되는 것이다.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합의와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정치뿐만 아니라 근현대의 정의론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낸다. 선택과 합의에 관한 다양한 개념이 오늘날의 사고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되짚어 보자.
- 선택하는 자아의 초기 개념은 존 로크로부터 나왔다.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지, 아버지의 권위나 왕의 권력에 구속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완전히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이기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상태를 벗어나 다른 이의 정치권력에 구속될 수 없다."
- 이마누엘 칸트는 선택하는 자아의 더욱 강력한 개념을 제시했다. 공리주의와 경험주의 철학자들에 맞서, 칸트는 우리가 스스로를 취향과 욕구의 덩어리 이상의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롭다는 것은 자율적이라는 의미이고, 자율적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지배된다는 의미이다.
- 20세기에는 존 롤스가 칸트의 자율적 자아 개념을 수용해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정의론을 이끌어 냈다. 칸트와 마찬가지로 롤스 역시 우리 선택에는 도덕적으로 임의의 요소들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음을 발견했다.
- 자율적 의지에 관한 칸트의 생각과 무지의 장막 뒤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적 합의라는 롤스의 생각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특정한 목적이나 애착에 구속되지 않는 도덕적 행위자를 생각한다는 점이다. 도덕법을 따르거나 정의의 원칙을 선택한다면, 이는 지금 세상에서 자신의 지위나 위치를 만든 역할이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정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만약 특정한 정체성을 배제해야 한다면, 오늘날 독일인이 유대인 대학살을 특별한 책임이 있다거나, 현 세대 미국인이 노예제나 인종 차별 정책의 잘못을 배상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 정체성으로부터 떼어 놓고, 나를 자유롭고 독립된 자아라고 생각한다면, 그 같은 역사적 부당함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다른 사람보다 내게 더 있다고 말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라는 생각은 여러 세대에 걸친 집단적 책임이라는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훨씬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도덕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정부는 좋은 삶의 의미를 판단하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고대의 정치 개념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정치의 목적을 경제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를 공동으로 방위하는 책임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격을 기르게 하고 좋은 시민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의에 관한 논의는 좋은 삶에 관한 논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오늘날에는 정치가 미덕을 키우는 것이라는 생각은 생소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무엇이 미덕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칸트와 롤스는 좋은 삶에 대해 종교적으로든 세속적으로든 특정 개념을 강조하는 저의 이론은 자유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런 이론은 타인의 가치를 강요함으로써, 인간을 목표를 선택할 능력이 있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로 존중하지 않는다. 이처럼 선택이 자유로운 자아를 위해서는 중립적인 국가가 유리하다.

□중립적 틀의 매력은 분명 어떤 삶의 방식을 선호한다거나 선에 대한 관념을 단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의와 자유

□이 논쟁의 관건은 '우리는 정의를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까?'라는 추상적 문제, 그 이상이다. 권리가 선보다 앞선다는 주장에 대한 논쟁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의 의미에 관한 논쟁이다. 칸트와 롤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선을 선택할 여지를 남겨 두지 않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이런 우려를 낳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는 정의를 인간과 인간 본성에 맞는 목적이나 선의 적합성 문제로 본다. 하지만 우리는 정의를 적합성이 아니라 선택을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 이론이 매력적이긴 해도, 자유를 바라보는 시각에 결함이 있다. 좋은 삶을 놓고 대립하는 여러 관념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정의의 원칙을 찾으려는 열망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적어도 내가 이끌어 낸 결론이다. 나는 지금까지 소개한 여러 철학적 주장과 씨름하면서, 그 주장이 공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보았다. 그 결과 선택의 자유는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더욱이 중립적인 정의의 원칙을 찾으려는 시도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쉽다. 본질적인 도덕 문제를 다루지 않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설령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공동체의 요구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이 가진 약점은 그 호소력과 관련된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로 여긴다면, 또한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도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

리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칭찬하기까지 하는 다양한 도덕적 정치적 의무를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는 연대와 충성의 의무, 역사적 기억과 종교적 신념에 관한 의무가 포함된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와 전통으로부터 생겨난 도덕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부담을 감수하는 자아'로 여기지 않는 한, 즉 내가 정하지 않은 도덕적 요구까지 받아들일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도덕 및 정치적 경험의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만약 인간이 자발적 존재라는 관념이 약한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소속된 존재이자 자유로운 자아로 볼 수 있겠는가?

이야기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그는 우리가 도덕적 행위자로서 목적과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인간을 주의주의적으로 보는 시각의 대안으로 매킨타이어는 서사(narrative)라는 관념을 제시한다.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다. 우리의 삶은 서사적 탐색과도 같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려면 그전에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매킨타이어는 모든 삶의 서사에는 특정한 목적론적 성격이 있음을 발견했다.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어떤 통합이나 일관성을 염원하는 서사적 탐색을 해나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갈림길에 마주쳤을 때, 나는 내 삶의 전반에 가장 적합하고 마음이 가는 길을 찾아내려 애쓴다. 도덕적 고민은 내 의지의 행사라기보다 내 삶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에 가깝다.

□도덕적 행위자를 서사로 설명하는 방식에는 이런 가능성을 허용하는 미덕이 존재한다. 이 설명을 도덕적 고민이 어떤 식으로 내 삶이 속한 더 큰 삶의 이야기 안에서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살펴보는지를 부여 주기도 한다. "나는 개인으로만은 결코 선을 추구하거나 미덕을 실천할 수 없다." 내가 속한 이야기와 친숙하게 될 때만 내 삶의 서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매킨타이어에게 도덕적 사유의 서사적 또는 목적론적 측면은 우리가 전체에 속하는 구성원이라는 점과 소속하고 있다는 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인간을 서사적 존재로 보는 매킨타이어의 시각은 인간을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과거의 부담을 감수하지 않는 자발적 존재로 보는 시각과 확실히 대비된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두 시각을 평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어느 쪽이 도덕적 정치적 의무를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 묻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았고, 사회계약의 결과로도 돌릴 수 없는 도덕적 의무에 묶여 있는가?

압의를 넘어서는 의무

□인간을 자발적 존재로 볼 것인가, 서사적 개념으로 파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사회계약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 번째 부류의 의무를 인정하느냐에 달렸다. 그 의무를 연대 의무 또는

구성원 의무라고 칭하자, 자연적 의무와 달리 연대 의무는 특수하며 보편적이지 않다. 그 의무에는 우리가 저야 할(엄밀히 말해서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역사를 공유하는 존재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자발적 의무와 달리, 합의에 기초하지는 않는다. 연대 의무에 담긴 도덕의 무게는 소속된 자아라는 도덕적 사유에서, 그리고 내 삶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밀접하게 결부된다는 인식으로부터 나온다.

□도덕적 책임의 세 가지 범주

1. 자연적 의무: 보편적이고,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2. 자발적 의무: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하다.
3. 연대 의무: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연대와 소속

□연대 의무 혹은 구성원 의무의 몇 가지 예

가족의 의무

- 두 아이가 식사 직전인데, 오직 한명 밖에 구할 시간이 없다고 가정하자. 당신이 자기 아이를 구하는 것이 잘못일까?

프랑스 레지스탕스

- 어느 폭격기 조종사가 명령을 받고 보니, 공습 목표 지역이 자신의 고향 마을이었다. 그는 이번 임무에서 자기를 빼달라고 요청한다.

에티오피아 유대인 구출 작전

애국심은 미덕일까?

□애국심은 흔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 도덕 감정이다.

□같은 시민 사이의 의무는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의무를 초월하는가? 그렇다면 그 의무를 합의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애국심의 열렬한 옹호자인 장 자크 루소는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정체성은 보편적 인간성의 하나로 반드시 추가해야 할 요소라고 주장한다.

□자유가 내 욕구와 경향성을 따르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자유가 가능할까? 내게 동기 부여되는 모든 것은 외부 영향으로 결정되는 욕구나 경향성에 의한 것 아닌가?

국경 순찰

- 외국인 이민을 허용하면 미국인의 생활수준이 떨어진다고 치자. 이는 이민 제한을 정당화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까?
- 출생이라는 우연은 권리의 기준이 될 수 없기에, 풍요로움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민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산 애용’ 운동을 불공평한가?

-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품이 따로 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그 제품을 사야 하는 타당한 근거가 있을까?

연대는 자기 사람만 행기는 편애일까?

- 다른 사람보다 자기 가족, 친구, 동료로 더 생각하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한다. 하지만 자기 사람에게만 특별히 관심을 두는 태도는 편협하고 내부 지향적이어서, 애국심이나 형제애라는 이름으로 가치를 인정하기보다는 극복해야 하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 아니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연대와 소속 의무는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로도 향한다. 내가 사는 특정 공동체에서 나오는 특별한 의무 가운데 일부는 같은 공동체 사람에게 내가 지는 의무다. 하지만 나머지는 내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지는 의무다.
- 내 나라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배상하는 일은 내 나라에 충성을 맹세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 하나의 전쟁을 부당하다는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그 전쟁을 미국인이 치를 가치가 없을뿐더러 우리 국민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었다. 첫 번째 이유는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그 전쟁에 책임이 있는 나라의 시민들만이 느끼고 주장할 수 있다.
- 자부심 및 수치심이라는 윤리와 집단적 책임이라는 윤리가 이처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개인주의를 근거로 집단적 사죄를 거부하는 보수 정치인들의 모습은 당황스럽다. 개인은 단지 자신의 선택과 행동만 책임지면 그만이라고 고집한다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어렵다. 미국 아닌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도 미국 독립 선언서, 미국의 헌법,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알링턴 국립묘지에 잠든 영웅 등을 존경하거나 칭송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애국적 자부심을 느끼려면 세월을 뛰어넘어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소속감에는 책임감도 동반한다. 내 나라의 과거를 현재로 가져와 도덕적 부채를 해결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나라와 역사에 전정한 자부심 또한 느낄 수 없다.

충성심이 보편적 도덕 원칙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 연대 의무가 지탄받을 때는 자연적 의무를 위반하게 만들 때뿐이다. 하지만 인간을 이야기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이 옳다면, 연대 의무를 (때로는 자연적 의무와 대립할 정도로) 자유주의자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할 수 있다.

로버트 리

- 우리는 왜 부당한 명분을 향한 그의 충성스러운 태도를 존경해야 할까?
- 충성이 왜 미덕일까? 그것은 도덕적 판단을 방해하고 옳은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단순한 정서, 느낌, 감정적 끌림 아닐까?

□그렇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충성심이 진실한 도덕적 무게가 없는 감상에 불과하다면, 리의 난처함은 한쪽에는 도덕, 다른 한쪽에는 단순한 감상 혹은 편견을 놓아두고 벌인 고민일 뿐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 문제와 관련된 도덕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리의 난처함을 심리적인 감상으로만 해석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리의 선택이 아니라, 그의 고민에 나타난 인격에 끌려 리 같은 사람을 동정을 넘어 존경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존경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더 큰 삶의 일부로 이해하고 감수하는 경향이다. 그것은 나를 특별한 삶으로 끌어들이면서 그 특별함을 의식하게 하고, 다른 여러 요구와 더 넓은 지평에도 눈을 뜨라는 시대의 요구다, 인격을 갖춘다는 것은 (때로는 서로 상충하는) 여러 부담을 받아들이며 산다는 뜻이다.

형제를 지키는 사례1: 벌저 형제

□대개는 살인 용의자의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도록 협조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의무를 뛰어넘을까? 윌리엄 벌저는 그렇게 생각한 모양이다.

형제를 지키는 사례2: 유나바머

□형 문제에 대한 윌리엄 벌저와 데이비드 카진스키의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벌저에게는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범인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의무보다 중요했고, 카진스키에게는 그 반대였다.

□범죄자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의무 같은 도덕보다 충성과 연대가 더 무거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이들이 직면했던 딜레마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의무가 합의나, 인간 대 인간의 보편적 의무에만 기초한다면, 형제애로 인한 이런 곤란한 처지를 설명하기 힘들다.

정의와 좋은 삶

□연대의식 없이는 삶을 살아가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은 도덕적 개인주의로 설명하기 힘들다. 합의의 윤리로도 설명할 수 없다. 연대에는 도덕적 힘이 부여되어 있기도 하다. 연대는 우리에게 부담을 지게 만든다. 연대 의식은 우리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존재, 소속된 존재로 본다.

□이런 것들이 다 정의와 무슨 상관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의무와 책임이 의지나 선택의 행동에서 나왔는지 알아내고자 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연대 의무나 구성원 의무는 선택과 관련 없는 이유, 즉 우리 삶과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를 해석하는 서사와 관련된 이유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당신도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는 도덕에 얽매인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애국, 연대, 집단적 책임 등이 요구될 때 거부감이 들거나, 그러한 요구를 일종의 합의에서 나오는 것으로 재해석하고 싶어 한다, 그런 요구를 거부하거나 재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까닭을 그래야 자유라는 익숙한 개념과의 일관성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 자유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도덕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신을 강제하는 의무는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 해석되곤 한

다.

- 자유에 관한 그런 사고방식에는 결함이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만이 아니다.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한 문제가 된다.
- 칸트와 롤스가 정의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을 거부한 이유 중 하나는 자유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헌법이 좋은 인격을 형성하거나 좋은 삶을 규정하려 든다면, 사람들에게 타인의 가치를 강요할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헌법은 개인을 스스로 자기 목적을 선택할 능력을 가진 자유롭고 독립된 자아로 존중하지 않는다.
- 만약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서사적 개념이 더욱 설득력 있다면, 정의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선에 대해 사유할 때 우리 정체성의 근원인 공동체의 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 중립을 갈망하는 태도는 잘못되었을 수 있다. 좋은 삶을 생각해 보지 않고 정의를 생각하기란 불가능하거나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 자유주의 정치론은 정치와 법을 도덕적 종교적 논란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탄생했다. 칸트와 롤스의 철학은 그러한 의도를 과감히, 또한 더 없이 분명하게 드러낸다.
- 정의에 대한 토론이 어쩔 수 없이 본질적인 도덕 문제로 빠지게 마련이라면, 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개적인 선의 논의가 종교적 논쟁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을까? 도덕적인 측면을 보다 많이 다루는 공개 토론은 어떤 모습이며, 우리가 익히 보아 온 정치 토론과는 어떻게 다를까? 이것들은 단순히 철학적 질문에 그치지 않는다. 이것들은 정치 담론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핵심 질문이다.